

어명소 2차관, ‘미래 핵심성장동력인 교통물류산업 지원 강화’

- 12일 서비스산업발전TF 교통물류반 킷오프 회의 개최...교통물류산업 발전 전략 논의 -

□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월 12일(목) 오전 국토발전전시관(서울 정동)에서 서비스산업발전TF 교통물류반 첫 회의를 개최하여, 교통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.

□ 서비스산업발전TF는 신성장동력 확보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 육성 대책을 마련하고자 지난 12월말 구성*되었으며, TF 내 조직 중 하나인 교통물류반에는 국토부, 해수부를 비롯해 물류, 해운, 모빌리티, 항공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.

* 경제부총리, 민간전문가(박병원 이사장)를 공동팀장으로, 총 8개의 작업반으로 구성 (총괄반, 수출활성화반, 생산성·R&D 혁신반, 보건·의료반, 관광반, 문화·컨텐츠반, 교통·물류반, ICT·SW반 → 교통·물류반은 국토부 2차관, 교통연구원장 공동반장)

○ 어 차관은 이 자리에서 “대표적 서비스 산업 중 하나인 교통물류산업은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, 경제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”라며, “앞으로도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, 치열해지는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선제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기”라고 강조하였다.

□ 회의에서는 교통·물류 산업의 혁신을 위해 과감한 규제 개선과 선제적 인프라 투자 및 기술개발 등 다양한 지원방안이 논의되었다.

○ 민간위원들은 서비스 혁신,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교통·물류 분야도 제조업 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하였다.

□ 어 차관은 “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교통·물류에 ICT와 혁신 기술이 융·복합되면서 기존과 전혀 다른 양상의 모빌리티 시대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”면서,

- “교통과 물류산업이 미래의 핵심성장동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프라, 금융, 기술개발 및 규제혁신 등 다방면으로 민간의 혁신을 지원하는 발전적인 전략을 마련할 것”을 당부하였다.

- 한편, 서비스산업발전TF 교통물류반은 킥오프 회의 후 핵심과제를 구체화하여 3월경 TF 전체회의를 통해 교통·물류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.

2023. 1. 12.

국토교통부 대변인